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22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 일시 :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온라인(ZOOM)

3. 임원 출석 현황

- 상임이사회 재적인원 52명 중 출석 35명과 위임 14명을 포함해 총 49명 참석
- 출석: 35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회장	전용배	상임이사	구강본
부회장	김기한		김상유
	김애랑		박성수
	김일광		백승현
	김종백		변경원
	남상백		이원재
	임충훈		정태욱
	정호원		조성균
	조송현		조용찬
	주종미		김매이
	최윤석		박찬민
당연직 부회장	김상훈		한준영
부회장 / 사무총장	조우정		권웅
			김민철
			김옥기
지부학회장	홍석표		김화룡
	정병기		하재현
	한남희		석강훈
			추나영

- 위임: 14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부회장	강현민	지부학회장(국외)	조성호
	권형일		편도영
	김진국	상임이사	김민수
	이정학		하재필
부회장/편집위원장	한진욱		박성배
지부학회장(국내)	강준호		이승환
	홍진배		홍은아

※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정관 제5장 제32조)

4. 안건

4.1 보고사항

- 사무국 관련 사항
- 2022년도 학회 회원 및 임원 현황
- 2022년 등기이사 변경 안내
- 편집국 관련 사항
- 홈페이지 리뉴얼
- 아시아스포츠경영학회(AASM)

4.2 심의 및 의결사항

- 2022년 사업계획(안)
- 2022년도 예산(안)
-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 시기, 학술상 대상자 확대 건
- 임원회비 납부 기한 건
- 신규이사 자격 기준 건
- 감사 선임 건
- 기타 안건

5. 회의 내용

5.1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 시기, 학술상 대상자 확대 건

○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 시기 건

▷ 조송현 부회장 제안

- 관례적으로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 시기는 첫 세미나에서 진행됨. 그러나 시행세칙에는 정기 총회 때 시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과거에는 스포츠산업관리자 간담회 때 시상하였던 것을 참고하여 이 시기를 올해부터 시상하는 것을 제안

▶ 결론

-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 시기는 5월로 진행함.

○ 학술상 대상자 확대 건

▷ 조송현 부회장 제안

- 학술상 대상자 확대 건에 대해서 상대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실시하여 논문 실적 환산율이 몇 % 이상이면 그 대상자들 모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학술상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김일광 부회장 제안

- 학술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에 투고하지 않고 타학회지에 투고한 실적에 대해서 시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와 타학회지의 실적환산율의 비율 차이를 반영해야 함

▷ 조송현 부회장 제안

- 김일광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와 타학회지의 실적 환산율 비율 차이는 있음.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확대는 시행세칙에는 '몇 명을 준다.'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결론

- 학술상 대상자를 확대함

5.2 임원회비 납부 기한 건

- 임원 회비 납부 기간을 가능하면 상반기로 지정하는 건
 - ▷ 주종미 부회장 제안
 - 회비를 상반기까지 납부하는 건에 대해서 추후 임원들에게 이메일 발송 시 “제 1차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 ▶ 결론
 - 임원 회비 납부 기간을 3월 31일로 특정하기로 함

5.3 신규 이사 자격 기준 건

- 신규 이사 추천 시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건
 - ▷ 사전의견조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또는 2년 정회원비 일시 납부자 조건을 충족하고 임원이 추천하는 자“ 에 대한 응답이 59.4%로 나타남
 - ▶ 결론
 - 신규 이사 추천 시 자격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사전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 없음)

5.4 감사 선임 건

- 지난 정기총회 때 선임되지 못한 감사 선임 건
 - ▷ 전용배 회장 제안
 - 1년 동안 수고해 줄 2명의 감사가 필요함
 - ▶ 결론
 - 2022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의 감사는 이원재 교수(국민대학교), 권웅 교수(제주대학교)가 선임됨

5.5 기타 안건

○ 임원 임명 및 해임 건

- ▶ 정병기 영남지부학회장 제안
 - 현재 임원(상임이사, 이사)의 해임에 대한 건은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함.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해임은 여러 가지 악순환 고리가 될 것임

- ▶ 한남희 충청지부학회장 제안
 - 사단법인의 조직에서 임원 선임은 회장님의 권한이며 상임이사 및 이사들의 임명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기간만료가 되는 것임. 이후 신입회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 새로운 이사진으로 구성하는 것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 ▶ 주종미 부회장 제안
 - 우리 학회의 정회원이 아닌 분이 상임이사 추대된 분들은 규정 위반임
 - 학회의 상임이사 및 이사 자격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이 선임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고려해야함

- ▶ 조송현 부회장 제안
 - 주종미 교수님께서서 학회의 임원 자격조건이 있는데 선임되지 않았던 분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회장님께 전달할 것을 제안함

- ▶ 정병기 영남지부학회장 제안
 - 학회 임원으로서 일방적인 해임은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함. 받아들인 사람도 해임 건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 ▶ 결론
 - 회장이 의견 청취 후 정리함(임원 선임은 신입회장의 권한임)

○ 기타 제안 건

▷ 전용배 회장 제안

- 회장 출장비 등 업무 추진시 개인카드 사용 및 인정 건
-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위임장 대체 인정 건
- 임원회비에 정회원비(연회비)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
- 시행세칙(연구윤리 포함) 재정비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

▶ 결론

- 회장이 제안한 기타 안건에 대해 이견이 없이 의결함

[별첨 1] 제1차 상임이사회의 사진

○ 회의



